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      |                             |      |                  |
|------|-----------------------------|------|------------------|
| 학과   | ██████████                  | 이름   | 서형권              |
| 파견국가 | 미국                          | 파견도시 | San Marcos       |
| 파견대학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 파견기간 | 2012.08 - 2013.5 |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파견대학           | <p>캘리포니아 남부에 위치하며 연중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입니다. 규모는 순천향대학교 정도이지만 건물 수는 그보다 적습니다. 시설면은 쾌적합니다. 주변 환경은 아무래도 시골이라 한적하고 조용합니다. 한편으로는 조금은 심심할 때도 있지만 학기 중에는 학업 따라가기 바쁘기 때문에 공부하기에 최적의 학교입니다.</p>   |
| 2012-2학기<br>수업 | <p>COMM100: Intro to communication 주로 intro 는 신입생들을 위한 과목이다. 주로 커뮤니케이션, 방송, 인문학 관련 전공자들이 수강하였고 낮은 레벨의 수업이라 과제는 적었다. 의사소통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더 나아가 삶의 적용까지 대인관계에 맞춘 흥미로운 내용의 커리큘럼이지만 본인에게 전공분야도 아니고 해당 교수님이 모든 교수님들 중 가장 듣기 어려운 어휘력을 구사하여 후반부에는 참여율이 떨어졌다.</p> <p>KINE204: 신체트레이닝 및 건강관리 수업이다. 실기시간에는 웨이트트레이닝 지도 훈련법을 배운다. 주로 파트너와 함께 연습하고 숙지한다. 이론시간에는 인체에 포커스를 두어 기본적인 해부학, 건강관리 등을 배운다. 과제는 매주 수업주제에 맞게 간단히 작성하고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뉜다.</p> |

|                |  |
|----------------|--|
| 2013-1학기<br>수업 | <p>MUSC: vocal ensemble 릴렉스하기 위해 수강한 과목이다. 첫 학기 중 가장 재미있는 수업이었다. 학기 중 연습한 곡들을 종강 날 공연하는 것이 시험이다. 타지 생활함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풀고, 클래스에서 친구 사귀기에도 좋은 환경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인들도 주로 예체능 관련 전공자들이 친근하고 잘 챙겨주기에 추천하고 싶은 수업이다. 교수님 또한 아시안인을 사랑하신다.</p>  |
|                | <p>KINE200: first aid 수업이다. 응급처치 및 cpr 을 배우는 내용으로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수업이다. 1 학점 수업이라 학기 중반부에 먼저 종강이 된다. 필기와 구두 테스트가 있는데 본인은 speaking 약하기에 혼자 재시험을 봤었다. 외국인라고 봐주지 않지만 외국인이라 drop 시키지 않고 다시 기회를 준 것이다. 과제와 필기시험은 무난하다.</p>   |
|                | <p>HSC200: health science and wellness 수업이다. 신체 건강과 발달에 대해 다방면으로 배운다. 예를들어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스트레스, 흡연, 알콜, 정신병 등등 삶에 있어 이로운 내용의 수업이라 가장 만족하였다. 미국인의 외모를 위한 운동이 아닌 건강을 위한 관심과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과제의 양은 많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재밌었던 내용이라 힘들지 않았다.</p> <p>KINE309: team building PE. 체육교육과 수업으로 아이들에게 운동과 협력심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본인에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수업이었다. 매주 20 장 가량의 논문을 읽고 에세이를 작성해야 했으며 실기시간에는 수업의 반이 토론이었다. 학기 중반부터는 인근 중학교로 교생실습(?)처럼 파견되어 가르친다.</p> |

|            |   |
|------------|---|
| 프로그램<br>운영 | <p>전반적으로 우리학교의 국교 선생님들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지 않는다. 메일로 요구사항을 보내도 때로는 1 주일 넘게 답이 오지 않아 찾아가는 일도 있다. 그 외에는 친절히 도와주셨다. 하지만 기숙사 담당자들은 불친절하다.</p> <p>친구들 사귀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 자주 가는 것이다. 본인은 몇몇의 체육과 학생들과 운동하면서 친해졌다. 게다가 집에서 다양한 활동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다.</p> |
|------------|---|

### 3. 생활전반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날씨 | <p>일 년 연중 캘리포니아의 화창한 날씨를 즐길 수 있다. 습하지 않아 한국처럼 불쾌지수가 오르는 더위도 아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있어 밤에는 가벼운 자켓이 필요하다. 날씨만큼은 그 어느 곳 부럽지 않다.</p>  |
| 안전 | <p>특별하게 큰 안전사고는 없었다. 하지만 기숙사내 도난사고가 있었고, 캠퍼스내 사자가 출몰했다고 학교로부터 안전주의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 외 치안유지가 잘 되어있다. 캠퍼스내 경찰서가 있고 기숙사와 거리에 위급상황벨이 있다.</p>   |
| 숙소 | <p>학교기숙사( 0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p> <p>UVA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가장 저렴한 방이 665 달러이다. 방은 GV 보다 좁다. 하지만 거실과 화장실 주방은 만족하며 잘 이용하였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없고, 해당 RA 의 지시만 잘 따르면 된다. 도와줄 사람도 RA 이니까 친해지면 여러모로 좋다.</p> |

|    |   |
|----|---|
| 식사 |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br/>외부식당 ( ) 직접 요리 (0) 기타 ( )</p> <p>주변에 도보로 갈 만한 레스토랑이 한정적이다. 가격은 \$10~20 정도이다.<br/>주로 평일에는 직접 요리해 먹었다.</p> |
| 교통 | <p>기숙사는 도보 10 분거리이다.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sprinter, coster, bus 뿐이다. 차 있는 친구가 많으면 편하다. 주요도시로 샌디에이고는 40 분, 엘에이는 1 시간 반정도 걸린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 항목   | 비용  |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항공료  | 210만원   |                        |
| Fees | <p>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br/>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p> |                        |
| 보험료  | <p>자매대학에서 원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p>  | 자매대학 권유 보험, \$500(한학기) |
| 숙소   |   | 약\$665X10 개월           |
| 식비   |   | 약\$200-300(한달)         |
| 교통비  |   |                        |
| 책값   |   |                        |
| 합계   |   | 약 1800 만원              |

## 5. 출국 전 준비사항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딱 하나입니다. 재수 없을 정도로 뽀뽀해 지십시오. 자신감이 넘치는 학생이시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연습하세요. 지금 미국친구가 한국에 있으면 여자친구, 남자친구처럼 매일 매일 만나고 함께 시간 보내세요. 학원, 도서관가는 것은 정말 아무 쓸모없습니다. 제가 가장 아쉬웠고 후회했던 점이니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영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려면 리딩과 리스닝이지만 미국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은 회화입니다. 그러려면 리스닝이 되어야 미국애들이 말 걸어도 내가 이해를 하고, 얼버무리더라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친구들도 다 알아듣습니다. 시간이 지나 쌓이면 점점 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학교에서 제공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바로 GV 생활입니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외국인들과의 교류가 편하셨다면 이 곳 생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순천향대학교로 파견 온 친구들은 아시아에 관심이 있고 아주 배려심이 넘쳐 못 알아들을 우리들을 위해 천천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착하게 대해준 고마운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곳에서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거액을 서포터 해주셨음을 잊지 말고, 최고의 교환학생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 하셨다면 자신감 하나로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는 미국생활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만들고, 재미있게 지내는 것이라 봅니다. 때문에 뽀뽀하게, 자신있게, 계속 들이대면서 영어를 생활화하고 그들과 똑같은 학생으로 어울리시길 바랍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10 개월의 시간은 정말이지 지금 떠올리면 너무나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대학생활을 넘어 아마 앞으로 기다릴 인생에 있어서도 최고의 멋진 한 장의 사진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영어에 흥미를 갖게 된 계기는 이곳으로 단기연수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을 위해 처음 공부한 것이 토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기가 없어 미국에 오자마자 듣기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족한 영어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사귀기도 쉽지도 않았고, 매번 비슷한 정도와 수준의 대화로 자신감도 잃어 소극적으로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룸메이트 중 한 명과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인종차별적 문제인 것인지, 영어를 잘 못해서 무시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스트레스 받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과한 패기에 미치지 못하자 끊었던 담배도 한 번 물게 되고 한국, 부모님, 친구들 생각에 방황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이치처럼 바로 적응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인 마인드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들 피해 안주는 범위에서 편하고 여유롭게 하고 싶은 것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착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을 사귀 필요도 없고, 그저 나와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어준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업의 경우, 첫 학기는 놀기만 하고 두 번째 학기는 공부만 했습니다. 파견 전 어느 정도 걱정은 했었지만 저는 '미국 가서 즐기자' 라고 마음먹고 갔었기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국교 선생님들 얼굴을 떠올리며 pass 만 받자고 생각했었습니다. 첫 학기는 낮은 레벨 수업 위주로 수강하였고 과제도 별로 없었기에 공부와 멀어지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하지만 수업은 역시 들리지 않고 전공 외 과목은 더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학기는 의도와 다르게 수강했던 과목들이 어려운 수업이었습니다. 미국친구들에게도 까다롭고 어려운 교수님을 만나 몇 배의 노력을 쏟아 부어야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주로 평일 내내 과제들을 하고 일주일에 2 번씩 3 달 동안 밤을 새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 온 교환학생이지만 기본적으로 순천향대 학생으로서 온 것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지옥 같은 3 달이 영어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학업은 pass 만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여행을 했습니다. 서부와 동부 위주로 대도시를 방문하고 멕시코와 캐나다를 갔었습니다. 혼자 여행을 한 목적은 나를 위한 보상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고생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나를 수고했다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 나와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남자가 되라는 다짐, 그것을 위해 진짜 나를 찾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처음 가본 뉴욕의 맨해튼, 라스베가스의 그랜드캐년 등 눈은 호강하여 좋았지만 그보다도 끊임없이 걸으면서 느껴졌던 가슴속의 울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책에서도 공감 받지 못했던, 항상 아버지의 가르침을 되새겼던 예전의 나에게서 찾아 볼 수 없었던 무언가 나를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여행은 역시 지금도 즐거운 추억에 젖게 합니다. 여행하면서 만나는 각지의 사람들, 많은 외국인들 그들의 미소는 너무 따뜻했습니다. 보는 눈이 커지고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을 여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으로 많은 것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가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든지 잊지 말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곳에 있는 꿈을 꾸며 아쉬워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에 가시는 행운아입니다.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흐르니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Oceanside- 매일 볼 수 있는 캘리포니아 해변



Surfing- 캘리포니아 하면 서핑



Vocal ensemble concert- 멋진 하모니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선물



여행 중- 숙소에서 만난 파키스탄 친구와 즐거운 여행



Spring break- 일주일간 유타에서의 hiking여행



여행- 가장 좋았던 여행지chicago